

##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25주년 축하 메시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창설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리온 라포트 사령관과 신일순 부사령관을 비롯한 연합사 장병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1978년 창설된 이래 한·미 안보동맹의 핵심으로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하는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라포트 사령관 취임 이후 양국군 사이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개혁을 통해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두 나라의 우호협력 증진에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올해는 한·미 동맹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미 양국군은 한결같이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한·미연합사 장병 여러분이 그 중추적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취임 이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가진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확고한 동맹관계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미연합군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합방위태세를 갖추고 있는 데 대해 우리

국민과 함께 매우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굳건한 한·미 동맹의 주역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 여러분에게 우리 국민의 따뜻한 우정의 인사를 전하며, 한·미연합군사령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